

창세기강해 11

결혼의 세 가지 원리 (창 2:23~25)

하용조 목사 / 1998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순서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을 창설하신 후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진정한 결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것이며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따른 축복된 가정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원리들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은 생식 본능이나 집단본능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최초의 가정의 원칙대로 산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혼하고, 싸우고,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을 살펴보고 회복되고 치유되어 다시 한 번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온 하와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만들어 에덴동산에 두시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고 관계를 맺게 만들어서 아담이 가장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묘미가 있고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의 갈비뼈를 뽑아 그것을 재료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이며 결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오다가다 남녀가 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다 만나 결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전문 중매쟁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혼은 하나님이 중매해서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직접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했던 가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참으로 가정은 축복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과 나

놈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행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이 빠져 버린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는 축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아담에게로 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기로 만들어 키워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완제품입니다.

본질적인 ‘ ’

아담은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매력 있고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와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은 여자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담은 ‘저 여자는 또 다른 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신비이며 오묘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나누어지고 헤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의 엑기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뼈 중에 시시한 뼈가 아니라 뼈 중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완성하셨습니다. ‘뱀은 배필’이라는 것은 완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없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낳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들을 낳아도 남자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본질은 남자에게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며 누가 높고 낮은가’하는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모음 하나의 차이입니다. 남자라는 뜻을 가진 말은 ‘아담’인데 여자와 대칭될 때 사용하는 히브리말은 ‘이쉬’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쉬’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쉬’입니다. 모음 하나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몸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은 무엇일까요?

사랑 고백이 넘치는 곳

23절을 보면 진정한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
잘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있어
야 가정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동안 절대로 이혼하거나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고 별거하고 헤어지는 까닭은 실수를 했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성
격에 약점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
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부부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신과 상처와 오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겨
보려는 마음과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처음 말했던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가
정은 행복해 집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의 고백은 언제나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남자가 여
자에게서 사랑 고백을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뼈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기 싫어도 계속 말하다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스러웠던 여자
도 사랑스럽지 않게 됩니다.

계속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온누리교회 남자성도여러분!

회개하시고 부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매일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회복되고 건강해 질 것입니다.

결혼은 곧 ‘ ’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첫 번째 ‘독립성의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양육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결혼 적령기가 되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적령기를 놓친 자녀를 둔 부모는 속이 많이 탑니다. 자녀보다 열배나
더 속이 탑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혼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결혼의 원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혼이란 부모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종족보호본능 때문에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이 종족보존의 이용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들의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

니다. 부모의 삶의 계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새로 독립 분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세포가 분열하여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은 독자적인 세포를 이룹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제사도 지내야 하는 등 독립적인 삶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는 나이가 50세나 60세가 되어야 겨우 가능해 집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에는 여자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한 부부는 인생을 오래 살았거나 애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여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독립의 원리를 적용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떼어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빠른 시간에 회복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 분가하기를 원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것과 아들의 경제사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의 독립성은 진정한 새로운 가정의 출발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부모도 막상 자식이 결혼하면 섭섭해 하고 고독해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하면 일단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외롭고 고독해 질 것입니다.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던 마음을 끊고 인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계속 미련을 두어 40세가 넘고 50세가 되어도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 후에도 항상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항상 모든 일을 모두 부모가 해주었기 때문에 혼자 세상을 뚫고 살아 나갈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이들을 돕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자녀들을 무능한 부부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정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살아나갈 능력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것 포기한 사랑의 연합

두 번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의 원리는 연합입니다. 24절을 보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아교포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간섭하고, 자녀들은 남편이나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와 의논하는 이유는 부부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열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은 부부가 아교로 붙이는 것처럼 하나 되어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밀착해야 합니다.

연합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학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부모에게서 길들여진 습관, 가풍, 물질관리, 대인관계 등 모두가 다릅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하지만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매일 부부는 문화적인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는 방법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전쟁과 동일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부는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다 맙니다.

또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의 학벌과 가문을 따지는 이유는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려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일치하고 동의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아교처럼 잘 붙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붙이려면 그 접촉부분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곳에 물기가 있다거나 녹이 슬었다거나 먼지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였다고 해도 곧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유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의 문제는 서로가 치유되지 않은 채 결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춘기와 대학생살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모두 상처를 받고 삽니다. 이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고백되고, 공개되고, 그 아픔들이 치유되어 이기적인 자기 동기와 개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처 난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돼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잘 접촉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교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제가 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연합됩니다.

‘연합되었다’는 말은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뼈는 부러진 후에 다시 봉합을 하면 더욱 튼튼한 뼈가 되고, 나무를 아교로 붙이면 보통 나무보다 더욱 견고하게 되듯이 미완성인 남녀가 만났지만 예수로 온전히 연합이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두 사람 사이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두번째 부부사이의 강력하게 물샐틈없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세 번째,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듯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몸은 갈라지면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갈라지면 죽습니다. 그것이 몸의 특징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관계이상의 것이며 육체적이고 성

적인 것 이상의 관계입니다. 부부란 영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는 동물처럼 살거나 짐승이 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분열과 헤어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화해와 만남,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과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상처가 치유되고 한 몸을 만들며 막힌 담을 헐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부부에 대해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참된 부부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부부사이가 투명하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부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사이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축복의 가정, 은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